



절대 실패 없음, 청바지에 코트 입는 법

코트와 청바지는 추운 날씨에 대비하는 필수 조합 중 하나이다. 이번 시즌의 주된 트렌드는 루스하고 클래식한 청바지를 코트와 매치하는 것이다. 2023-2024 F/W 트렌드에 맞춘 두 아이템 활용 방법을 보그코리아 (vogue.co.kr)가 소개했다.

■ 가죽 코트 + 배기진

라펠 칼라와 클래식한 버튼이 있는 롱 테일러드 코트와 가죽 소재 배기진 또는 캔디진을 매치했다. 앵글 부츠를 착용하면 좀 더 우아한 느낌을 줄 수 있고, 스니커즈나 트레일 슈즈를 신으면 캐주얼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.



■ 트렌치 코트 + 비대칭 청바지

트렌치 코트는 실용적이고 다재다능할 뿐 아니라 시크한 분위기를 두루 연출할 수 있는 아우터이다. 어떤 청바지와도 잘 어울리지만, 비대칭 버튼다운 팬츠와 특히 잘 어울린다.

■ 다크 테일러드 코트 + 스트레이트 진

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멋스러운 다크 테일러드 코트와 스트레이트진은 어떤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. 다재다능하고 편안한 데일리 룩을 원한다면 클래식한 크루넥 점퍼와 블랙 발레 플랫을 선택하고, 특별한 저녁 외출에 착용하고 싶다면 기하학적인 모양의 고급스러운 힐이나 슬림한 웨지 힐을 선택해 보자.



■ 가벼운 오버사이즈 코트 + 청바지

캐주얼하고 시크한 룩을 원한다면 흰색, 크림색 같은 밝은 톤에 루스한 핏의 부드러운 코트를 선택하고 넉넉한 길이의 클래식한 청바지를 매치하자. 코트 특유의 분위기를 깨고 스트리트 감성을 더할 수 있다. 가방은 코트와 컬러감을 맞추거나 좀 더 밝은 색을 선택한다.

■ 그레이 코트 + 스톤 워싱 청바지

컬러 하나만으로도 자신만의 룩을 연출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그레이가 딱이다. 올가을 유행 컬러 중 하나이며, 견장이나 디테일이 있는 스타일을 고르면 블랙보다 베이직한 느낌이 덜하면서 멋스럽다. 청바지는 시즌 필수품으로 곱히는 스톤 워싱이 있는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한다.



■ 테디 코트 + 플레어 진

부드러운 테디 코트는 매우 따뜻할 뿐 아니라 멋스럽다. 부피가 큰 코트이므로 바지가 보이도록 미디엄 스타일을 선택한다. 플레어 팬츠와 매치하면 비율이 더 좋아 보인다.

사진=보그코리아

용문루

GRAND OPENING

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
Eat Good, Feel Good



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



★ ★ ★
각종 파티 및
단체 모임 환영

파티룸 10~50명 수용 가능

waiter, waitress 구합니다.

용문루 T.626.363.4961
www.yongmoonlu.com

월,수,목,금 11:30am ~ 3:00pm
4:30pm ~ 9:00pm 토,일 11:30am ~ 9:00pm

19240 Colima Rd. Rowland Heights, CA 91748